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4.4

나스닥, OPEC 감산과 지표 둔화로 부진 후 낙폭 축소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경기 둔화 우려 불구 장 후반 달러 약세 속 반발 매수 유입

•미 증시는 OPEC+의 추가 감산 발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 다만,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방어 업종이 강세를 보여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등 차별화가 진행. 한편, ISM 제조업지수가 3년내 최저치를 기록하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폭이 확대. 다만, 장 후반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 등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 유입되자 나스닥 낙폭 축소(다우 +0.98%, 나스닥 -0.27%, S&P500 +0.37%, 러셀2000 -0.01%)

특징 종목: 테슬라 급락 Vs. 에너지 업종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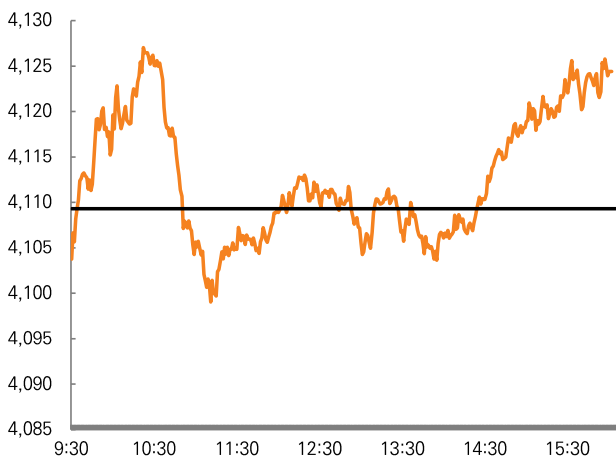
•엑슨모빌(+5.90%), 코노코필립스(+9.28%) 등 에너지 업종은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테슬라(-6.12%)는 1분기 인도량을 예상을 하회한 약 42만 3천대로 발표하자 하락. 특히 지난 주 관련 기대로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영향. 다만, 텍사스 공장 생산량이 주당 4천대를 돌파하는 등 생산 속도가 높아져 전망했던 연간 180만대 이상의 인도는 무난하다는 점을 감안 오늘 하락은 수급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음. 리비안(-1.61%), 루시드(-1.74%), 쿼텀 스케이프(-1.96%), 블링크 차징(-4.16%) 등 전기차 관련 종목군도 부진.

한국 증시 전망: 소폭 상승 출발 후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59%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2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6.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5%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ISM 제조업지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주목할 부분은 경기 둔화 가속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자 대형 기술주가 장 후반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한 점. 이는 결국 경기 침체시기에 견고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로 쏠림 현상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 물론, 한국 수출의 강력한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지수가 3년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기준선인 50을 5개월 연속 하회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72.34	-0.18	상해종합	3,296.40	+0.72
KOSDAQ	854.96	+0.88	홍콩항셱	20,409.18	+0.04
DOW	33,601.15	+0.98	베트남	1,079.28	+1.38
NASDAQ	12,189.45	-0.27	유로스톡스 50	4,311.05	-0.09
S&P 500	4,124.51	+0.37	영국	7,673.00	+0.54
캐나다	20,278.28	+0.89	독일	15,580.92	-0.31
일본	28,188.15	+0.52	프랑스	7,345.96	+0.3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 경기 둔화 우려 부각 ② OPEC 감산 결정

한국 수출의 강력한 선행지표이자 미국의 제조업 경제 활동을 알 수 있는 3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7.70이나 예상치인 47.5를 하회한 46.3으로 발표돼 3년내 최저치를 기록. 특히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하회해 미국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47.0에서 44.3으로 위축된 가운데 고용지수도 49.1에서 46.9로 둔화. 다만, 생산지수는 47.3에서 47.8로, 재고지수도 46.9에서 48.9로 개선. 업종별로 보면 금속 가공, 석유, 석탄제품 등이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음식료, 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은 위축.

2월 건설지출도 전월 대비 0.1% 감소했는데 주거부문이 0.6% 감소해 이를 주도. 반면, 비주거 부문의 0.4% 증가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공공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오피스 부문이 0.1%, 제조 공장이 2.6% 증가. 이러한 경제지표 결과를 토대로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5%에서 하향 조정된 1.7%로 발표.

결국 OPEC의 추가 감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그로 인한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상승을 뒤로하고 이 날 발표된 경제 지표 부진으로 한 경기 위축 우려 속 달리는 약세, 금리도 하락 전환하는 등의 변화를 보임. 주식 시장도 상승 폭을 축소하거나 하락폭을 확대하는 등 경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줌. 다만, 장 후반 재무재표가 견고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여전히 지수 상승을 전망하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높은 것으로 추정.

OPEC+가 기존 200만 배럴 감산에 이어 하루 166만 배럴 감산을 발표하자 국제유가가 급등. 이번 감산은 전세계 석유 수요의 약 3.7%를 차지하는 규모로 국제유가에 영향. 사우디가 이번 감산분 중 50만 배럴을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는 올해 초 발표한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이번 감산안은 정기 월례회의를 앞두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인데 미 행정부는 감산할 때가 아니라고 반발.

최근 미국 경기 둔화가 확대되고 지역 은행 일부가 파산을 발표하는 등 은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OPEC의 발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에 부담. 실제 이날 CME FedWatch를 통해 확인한 5월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 확률은 기존 48%에서 56%로 높아지는 등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여, 지역은행들의 하락을 부추김.

장 시작 전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번 OPEC+의 감산은 국제유가 상승을 촉발시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더욱 힘이 들것이라고 주장. 물론,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은 공급 증가 문제가 아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국제유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테슬라 부진 Vs. 에너지 업종 강세

엑슨모빌(+5.90%), 셰브론(+4.16%), 코노코필립스(+9.28%) 등 에너지 업종은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머크(+2.33%), 일라이릴리(+2.13%) 등 제약업종은 물론 유나이티드 헬스(+4.57%), 시그나(+2.53%) 등 건강보험 업종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상승. 가격 전가력이 높아 인플레이션 방어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불 요율 업데이트 발표로 이익 증가 기대를 높인 점도 영향. 월마트(+0.84%), 코카콜라(+0.60%), 필립모리스(+0.67%), P&G(+0.55%) 등의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경기 방어주도 경기 둔화 우려 속 강세.

테슬라(-6.12%)는 1분기 인도량을 예상을 하회한 약 42만 3천대로 발표하자 하락. 특히 지난 주 관련 기대로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영향. 다만, 텍사스 공장 생산량이 주당 4천대를 돌파하는 등 생산 속도가 높아져 전망했던 연간 180만대 이상의 인도는 무난하다는 점을 감안 오늘 하락은 수급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음. 리비안(-1.61%), 루시드(-1.74%), 퀀텀 스키프(-1.96%), 블링크 차징(-4.16%) 등 전기차 관련 종목군도 부진.

플러그 파워(-5.12%), 퍼스트솔라(-4.14%)는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HR 솔루션 업체인 ADP(-2.61%)와 페이체스(-2.84%)는 BOA가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고 발표하자 부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4.93	대형 가치주 ETF (IVE)	+0.05
클린테크 ETF (CTEC)	-0.82	중형 가치주 ETF (IWS)	-0.04
소매업체 ETF (XLY)	-0.92	소형 가치주 ETF (IWN)	-0.12
온라인소매 ETF (EBIZ)	-0.19	대형 성장주 ETF (VUG)	-0.09
미국 인프라 ETF (PAVE)	-0.16	중형 성장주 ETF (IWP)	0.00
핀테크 ETF (FINX)	-0.82	소형 성장주 ETF (IWO)	+0.3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34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8
클라우드 ETF (CLOU)	-1.42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22
사이버보안 ETF (BUG)	-1.36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5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1	미국 국채 ETF (IEF)	+0.4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39	하이일드 ETF (JNK)	-0.09
바이오섹터 ETF (IBB)	+0.47	신흥국 채권 ETF (EMBD)	+0.32
로봇&AI ETF (BOTZ)	-0.16	물가연동채 ETF (TIP)	+0.18
반도체 ETF (SMH)	-0.5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666.07	+4.91	+9.08	+0.27
헬스케어	1,527.04	+1.08	+2.44	+1.58
소재	511.23	+0.65	+4.84	-3.89
커뮤니케이션	192.54	+0.53	+3.11	+8.16
필수소비재	784.39	+0.51	+2.47	+3.80
산업재	858.21	+0.19	+3.74	-1.87
금융	535.90	+0.12	+2.43	-10.24
IT	2,637.78	-0.05	+4.25	+8.02
유틸리티	341.52	-0.72	+2.18	+1.99
경기소비재	1,153.35	-0.91	+4.43	+1.57
부동산	232.56	-0.95	+4.54	-4.3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소폭 상승 출발 후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59%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2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 월물은 1,306.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5%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물가 하락에 따른 안도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부지침 발표 후 불확실성 완화로 힘입어 상승 출발. 그렇지만, 주말에 발표된 OPEC+의 추가 감산 발표로 미국 국채 금리가 시간외로 급등하자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여기에 한국 수출 부진,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둔화와 더불어 국제유가의 강세 등으로 달러/원 환율이 한 때 20원 가까이 급등하는 등 원화 약세 움직임도 부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기 때문. 다만, 장 후반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돼 KOSPI는 0.18% 하락. KOSDAQ은 2차 전자 업종 강세로 0.88%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ISM 제조업지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물론, 다우지수 강세의 주요 원인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업종 강세 및 개별 업종 요인으로 인한 헬스케어 업종 강세였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 주목할 부분은 경기 둔화 가속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자 대형 기술주가 장 후반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한 점. 이는 결국 경기 침체시기에 견고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로 쏠림 현상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물론, 한국 수출의 강력한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지수가 3년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기준선인 50을 5개월 연속 하회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 전일 달러/원 환율 급등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이라는 점을 감안 여전히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NDF 달러/원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강세 기초를 높인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 지속

미국 3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7.70이나 예상치인 47.5를 하회한 46.3으로 발표돼 3년내 최저치를 기록.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47.0에서 44.3으로 위축된 가운데 고용지수도 49.1에서 46.9로 발표. 다만, 생산지수는 47.3에서 47.8로, 재고지수도 46.9에서 48.9로 개선.

미국 2월 건설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4% 증가보다 둔화된 전월 대비 0.1% 감소로 발표됐으며 전년 대비로도 지난달 발표된 5.7% 증가에서 5.2% 증가로 발표. 주거부문이 전월 대비 0.6% 증가한 반면, 비주거 지출은 0.4% 증가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1분기 GDP 성장률을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5%에서 하향 조정된 1.7%로 전망. 소비자지출을 4.6%에서 3.7%로 민간 총투자는 -7.3%에서 -8.5%로 하향 조정.



국채 금리, ISM 제조업지수 발표 후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OPEC+가 기존의 200만 배럴 감산에 이어 166만 배럴 감산을 발표하자 급등. 사우디가 50만 배럴 추가 감산하고 러시아는 연말까지 50만 배럴 감산을 연장하는 등 자율적인 감산을 할 것이라고 발표. 미국 천연가스는 높은 기온과 풍부한 재고를 이유로 5% 내외 하락해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유럽 천연가스는 4월 둘째 주까지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과 독일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기온이 평년보다 3~7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자 급등.

달러화는 OPEC+의 감산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ISM 제조업지수가 둔화되는 등 미국 경기 위축 우려가 유입되자 약세로 전환. 유로화는 일부 위원들이 5월에도 50bp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OPEC+ 국가들의 추가 감산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급등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전환. 여기에 애플 렌타 연은의 GDPNow 1분기 GDP 전망이 2.5%에서 1.7%로 낮아진 점도 금리 하락 전환 요인. 특히 단기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CME FedWatch에서 5월 25bp 금리인상 확률이 48%에서 56%로 상승하자 금리가 상승했으나, 경기 침체 우려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전환.

금은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및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특히 달러 약세 전환도 영향.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경기 침체 우려 속 매물 소화하며 하락. 곡물은 옥수수가 미국의 건조한 날씨 예보로 작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반면, 대두와 밀은 미국 파종 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6%, 철근은 1.36%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0.42	+6.50	+10.69	Dollar Index	102.031	-0.46	-0.80
브렌트유	84.93	+6.48	+9.40	EUR/USD	1.0903	+0.59	+0.97
천연가스	2.10	-4.47	+1.39	USD/JPY	132.43	-0.32	+0.65
금	2,000.40	+0.77	+1.52	GBP/USD	1.2417	+0.65	+1.06
은	24.02	-0.19	+4.17	USD/CHF	0.9130	-0.25	-0.28
알루미늄	2,397.50	-0.64	+1.44	AUD/USD	0.6785	+1.50	+2.01
전기동	8,917.00	-0.85	-0.52	USD/CAD	1.3434	-0.61	-1.66
아연	2,898.50	-0.82	-0.46	USD/RUB	78.3824	+0.85	+1.90
옥수수	657.75	-0.53	+1.35	USD/BRL	5.0696	+0.13	-2.49
밀	693.50	+0.54	-0.29	USD/CNH	6.8770	+0.10	-0.08
대두	1,522.00	+1.00	+5.43	USD/KRW	1,316.50	+1.12	+1.15
커피	176.25	+3.37	-0.37	USD/KRW NDF1M	1,306.15	+0.14	+0.8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13	-5.44	-11.67	스페인	3.275	-2.90	+1.20
한국	3.385	+2.50	+12.30	포르투갈	3.078	-4.60	-1.90
일본	0.391	+4.00	+7.10	그리스	4.195	-2.30	+8.80
독일	2.255	-3.70	+2.80	이탈리아	4.101	+0.40	+3.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